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7월 20일
(월요일)

동북일보 4면

강북구의회,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

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, 운영하는 회의체인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(운영위원회, 행정보건의위원회, 복지건설위원회)의 각 위원장들을 만나 제7대 강북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.

“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기여...”

이영심 운영위원회 위원장

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.

“조선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 줄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도 그간 나온 이야기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. 의원간의 소통할 시간을 더욱 많이 갖고 소통하고 화합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.

또 의원 윤리행동 강령이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임기 내에 검토를 하여 구민들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.”

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운영할 부분.



▲ 이영심 운영위원장.

“남은 1년 동안은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려 하고, 조선 의원이었던 시절로 마음을 돌려 공부하고 모든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 강북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.

— 구의원 이영심으로서 바라보는 강북구의 현안.

“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앞으로 갈수도 뒤로 갈수도 없는 답답함이 늘 마음을 씹을하게 한다.

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를 하려 하는 부분은 커가지만 차상위층을 포함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,

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. 소외계층에게는 바른 행정으로 살고 싶은 강북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”

한편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,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처리하고, 이들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심사,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,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,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하도록 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.

특히, 인사회 및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,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,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의 의견 등 주요사항을 처리하고 있다.

특히, 인사회 및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,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,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의 의견 등 주요사항을 처리하고 있다.